

곡성 백세미 누룽지, 아마존 입점했다

전라남도 브랜드관 통해 전세계 소비자와 만나 가마솥 수제 방식 만들어 식감 부드럽고 맛 좋아



곡성군 대표 쌀 백세미로 제작한 가마솥 수제 누룽지가 세계적인 온라인 판매 플랫폼 아마존에 진출했다.

지난 18일 아마존을 통해 판매될 백세미 가마솥 수제 누룽지가 aT한국농식품유통공사 장성비축기지에서 선적됐다.

해당 백세미 누룽지는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통해 세계의 소비자와 만나게 된다.

전라남도는 농수산물품의 안정적인 대미 수출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지방정부 최초로 아마존 전라남도 브랜드관을 개설했다.

현재 전라남도 농수산 가공식품 수출기업 24개사에서 50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입점으로 곡성군이 자랑하는 백세미로 만든 누룽지도 추가되면서 상품 구성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백세미는 곡성군의 특화미로서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중 하나다. 향이 뛰어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세미 누룽지는 백세미를 가마솥에서 수제 방식으로 만든 가공식품이



다. 백세미 특유의 맛과 향이 고스란히 남아있어 여타의 누룽지보다 식감이 부드럽고 맛이 좋다.

곡성군 관계자는 "백세미가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기 위한 첫걸음을 떴다. 대한민국을 대표해 전 세계에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적식에 참여했던 석곡농협 한승준 조합장은 "이번 백세미 누룽지 입점이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백세미 쌀 자체를 아마존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석곡농협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장성군 서삼면의 '특별한 이장회의'

장성호 수변길·경관폭포 등 방문... 축령산 발전방안 논의

장성군 서삼면이 특별한 이장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장성호 수변길에서 축령산 편백숲으로 활력을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축령산 편백숲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삼면 마을 이장들은 장성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잡은 장성호 수변길을 비롯해 장성공원 경관폭포와 공공급식 지원센터, 하이패



스 IC 예정지 등을 함께 방문한 뒤, 편백숲의 체류형 관광지 발전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기동취재본부



담양 창평면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담양군 창평면 주민자치회는 최근 창평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제3회 창평면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창평면 주민총회는 지난 1년간 주민자치회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제를 발굴해 마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으로, 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120명이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참석자를 30명으로 제한해 대표자 30

명이 참석의사가 있는 다른 주민들의 위임장을 받아 진행됐다.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지난 주민총회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마을주민 간 소통할 수 있는 마을별 소통게시판 설치,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가는 '창평의 자랑거리' 생활화 등 주민들의 생활을 다루는 지역 현안을 논의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김순호 구례군수, 한·중 도시발전연맹 대표자회의 참석

코로나19로 영상회의의 통해 확인한 한중우호관계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19일 한·중도시발전연맹 2차 대표자회의에 참석했다. 지난 해 체결된 한·중도시발전연맹은 한·중 6개 도시가 함께 국제 플랫폼을 구성하여 국제적 자원과 발전 에너지를 구축함과 동시에 도시협력성과를 풍부하게 확대시켜 서로 간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단체이다.

지난 해 제1차 대표자회의 이후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왕래하지 못하다가 일 년 여 만에 영상회의를 통해 재회의 자리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는 윤상기 하동군수, 홍득호 남해부군수를 비롯해 중국 청도시 성양구 왕파 서기, 래서시 강련군 부시장, 관령현 황파 서기 등 한·중 도시발전연맹의 6개 도시 대표자들이 참석하였다.

아울러 한·중 도시발전연맹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중국의 3개 도시(감숙성 성현, 산둥성 거야현, 흑룡강성 헤이허시 아이취구)의 대표자들 또한 참석하여 큰 관심을 보였다.

이 날 회의에서 2020년 한·중도시발전연맹 업무 추진 현황을 발표하고 각 도시별로 의제를 제시하여 내년 한·중도시발전연맹이 활동할 계획의 주요 틀을 논의하였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가 이렇게 영상의회의로나마 만날 수 있어 무척 반갑고, 이 자리를 통해 각 도시가 가



진 인적·물적 자원을 더욱 활발히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제를 통해 한·중도시발전연맹이 더욱 끈끈하게 활동하여 서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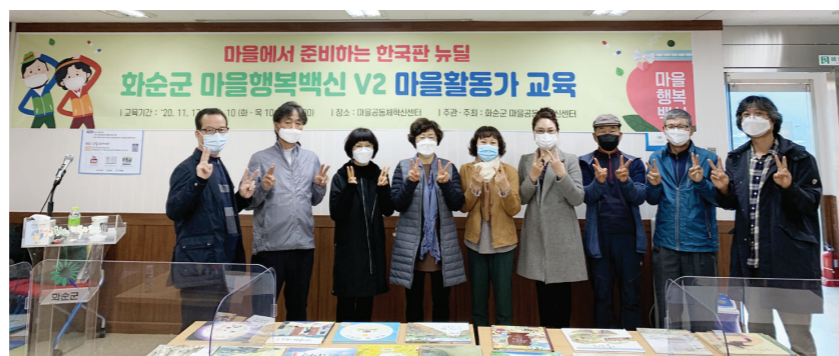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마을행복백신 마을활동가' 교육 프로그램 개강

주민자치·마을공동체 활성화 10명 내달까지 8회 거쳐 참여

화순군이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활동가 발굴과 역량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공동체 지원 중간조직인 화순군 마을공동체혁신센터는 지난 17일부터 두 번째 마을활동가 교육 프로그램(마을행복백신V2 마을활동가)을 개강했다.



마을활동가 10명은 12월까지 8회에 걸쳐 이론, 실무, 현장 교육에 참여해

활동가로서 역량을 키운다. 교육은 그림으로 마을자원 연결하

기, 마을자원의 SNS 홍보 활용과 영상 만들기, 에너지 마을, 식물을 활용한 그린 리모델링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론·실습 교육과 고충커피체험농장을 찾아 마을자원 활용과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경험한다.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마을활동가들은 내년부터 마을 주민 간 소통 촉진, 마을공동체 활동 사업 지원 등 주민자치와 공동체 활동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마을공동체 혁신센터(061-373-3438)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316억 규모

나주시는 1만4000여 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316억원 규모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을 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 고정, 조건 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했다.

재배작물, 경지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기존 직불제와는 달리 면적직불

금과 '소농직불금'으로 나눠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3단계로 구분해 농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를 낮추는 '역진적 단계'를 적용하고 소농직불금은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수가 120만원 지급한다.

직불금 규모는 총 315억97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157억원이 늘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기동취재본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